



제목	Kingdoms of Ruin: The Art and Architectural Splendours of Ancient Turke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 Tauris & Co Ltd.
발행일	2010. 6. 15.
저자	Jeremy Stafford-Deitsch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1845117993

**내용 요약**

일리아드의 배경인 트로이, 백색 대리석의 에페소스 및 페르가몬의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아나톨리아의 일부 유적지는 현대 방문자에게 친숙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문명의 새벽부터 아나톨리아는 히타이트, 프리지아, 리디아라는 위대한 제국을 탄생시켰으며, 그 후 페르시아, 그리스 및 로마에 귀속되기도 했다. 고대 터키의 역사는 이주와 정복, 예술적이면서 영적인 찬란함, 그리고 도시와 신들의 영욕으로 점철되어 엄청난 풍요와 웅장함을 자랑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거의 위대함은 이 지역의 거대한 경관을 채우고 있는 폐허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 책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폐허로 남은 아나톨리아의 고대 유적지를 중심으로 사진작가인 제레미 스테포드(Jeremy Stafford-Deitsch)가 과거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150장의 풀 컬러 이미지와 설명을 담았다. 이러한 사진들의 일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며, 일부는 학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반면 일부는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까지 두루 카메라에 담았다. 저자는 단지 사진 편집이나 문명에 대한 문명의 건조한 시점에서 기술하지 않고, 생명이 다한 폐허의 내적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고대인들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였고, 이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